

간호계 소식

제4회 대한보건간호원회 정기총회

지난 10월 6일, 대한보건간호원회에서는 제4회 정기총회를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덕화부회장의 사회로 본회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유순한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유공자 표창, 자매결연서 수여가 있었으며, 속회된 회의에서는 사업보고 및 회칙수정안 심의, 내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내년도 사업계획안은,

보건간호원 활동지침서 완성, 학술·집담회(3회) 개최, 보건간호원부장작용추진, 자매결연사업추진, 자매결연사업지원, 세미나개회(2회), 보건간호원회 회보발간, 보건간호원 뱃지제정 등이 통과되었다.

회칙개정에서는, “각도에 지부를 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현재의 입회비 200원이 500원으로 인상 개정되었다.

보건간호원의 확대된 역할세미나

지난 10월 4~5일 양일간에 걸쳐 “보건간호원의 확대된 역할세미나”가 대한보건간호원회 주최, 가족계획연구원 후원으로 가족계획연구원 강



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국의 보건간호원이 다수 참석한 이 세미나에서는 첫날 김도임박사의 「주제강연」이 있었으며 또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참가자들의 호응속에 이틀동안 진행됐다.

행정면으로 본 보건간호원의 확대된 역할,

박 형 중 (보건대학원)

가족계획실천에 따르는 여러가지 부작용

김 태 룡 (가족계획연구원)

사업면으로 본 보건간호원의 확대된 역할,

이 선 자 (보건대학원)

교육면으로 본 보건간호원의 확대된 역할

조 원 정 (연세대학교)

부작용처리 및 감소방안

이 희 영 (서울대학교)

충남지부 「제1회 세미나」 개최

지난 9월 22일 본회 충남지부에서는 “새시대를 향한 간호원의 역할”이란 주제아래 제1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전 가톨릭문화관에서 안홍자지부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 세미나에는 본회에서도 전산초회장, 윤수복총부의 참석이 있었으며 1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박사학위」 받은

田山草 회장



간호학계 잇따른 경사에 이번에 바톤을 이어 받은 분은, 본회 田山草회장.

지난 9월 17일, 연세대학교 졸업식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으시므로서 간호학계 발전에 더욱 굳은 기쁨을 마련하셨다.

학위논문은 「전인간호의 임상학적 분석과 실행에 관한 연구」이다.

연세대간호대학장에, 본회회장에 눈코 뜰사이 없이 동분서주 하시는 가운데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그 숭은 노력의 고뇌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옛날 간호학교 시절에 실험실 창밖을 내다보며 굳게 다짐했던 일, 많은 간호계 선배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은 이미 간호가 학문화 되어 새로운 인간학으로 발전하는 단계

에 이르렀지만, 오늘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이러한 소망은 더욱 강렬하게 인식됐다」고 그 소감을 말씀하신다.

이화여고 다니던 소녀시절부터 강한 학구열과 부친(故 전영택박사)의 평상시 격려가 항상 학문을 떠날 수 없게 하였다는 田山草회장은, 미국의 「에모리」대학원에서의 석사과정에서도 1등으로 졸업했다는 어느 제자의 자랑스런 이야기다.

이제부턴 후배들에게 문을 쉽게 열어 주도록 애쓰는 일이 남았고, 문교부 학위법에 “간호학박사”의 명칭이 하루속히 삽입되게 하는 것이 시급함을 느낀다고 앞으로의 할일을 생각하신다.

그 연계 및 연사는 다음과 같다.

새시대를 향한 간호의 이념

천 산 초 (본회 회장)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

정 광 모 (한국일보 논설위원)

현대 생활과 정신위생

소 주 영 (충남의대학장결 부속병원장)

73년도 군진의학간호분회 학술대회

대한군진의학협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갖

는 종합학술대회를 지난 9월 28일 육군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는 다섯가지 분회, 즉 군의, 치의 의정, 간호, 수의로 나뉘어져 분회학술대회를



가졌으며, 이날 개회식에서는 田山草회장의 10명에게 명예회원증과 메달을 수여하여 의무병과 발전에 더욱 굳건한 기반을 이루었다.

그 수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한간호협회장	전 산 조
연대간호대 교수	홍 신 영
대한간호학회장	이 귀 향
대한보건의료위원회회장	유 손 한
한국알브 논설위원	정 광 모
역대간호명과장(9대)	최 보 배
8대간호명과장	김 순 봉
퇴역간호장교	조 귀 례
미 121후송병원	Billie D.S. Sims
미 121후송병원	Susan Royer
미 8군간호고문관실	Liburn L. Underhill

적십자간호학교 교사 신축공사 기공

지난 9월 8일 적십자간호학교 교사신축공사 기공식이 대한적십자사 김용우총재를 비롯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 공사 현장에서 치행됐다.

신축된 교사는 그간 학급증설로 인하여 협소한 교실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적십자병원의 응급치료실과 가입원실 일부를 충당하게 된다는 것이며 165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총 건평 756평으로 금년도에는 지상 3층까지분 615



(좌로부터 세번째가 중앙숙교장)

평의 공사를 시공한다는 것이다.

이 공사에는 총 6,780여만원의 자금이 투입되며 연말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개정간호학교

강당낙성축하음악회 개최

지난 9월 28일 개정간호학교에서는 신축강당 낙성식을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축하음악회를 가졌다는 흐뭇한 소식이다.



이대부속의료원 중앙진료부 봉헌식

이대부속의료원에서는 확장계획의 일부인 중앙진료부가 완성되어 지난 9월 29일 내외귀빈이 모인 가운데 봉헌식을 가졌다.

가관식철 맞은 간호학생들

가을철을 맞이하여 전국의 각간호학교에서는 학생들 가관식이 한창이다.

「나이팅게일」의 서약문을 낭독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가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마음호뭇하게 느껴진다.

다음은 가관식을 거행한 학교들로서 본회에 그 소식을 전해왔다.

9월 7일, 전주에수병원간호전문학교 제23회 가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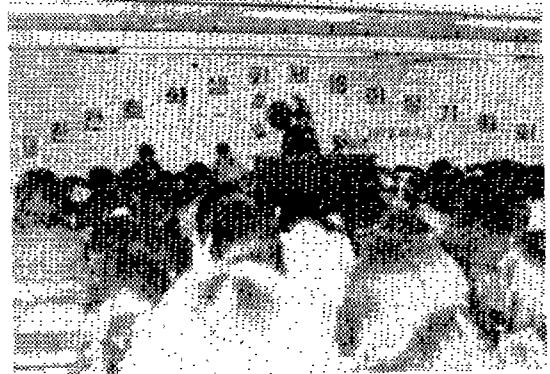
9월14일, 국군간호학교 제17기생도 가관식

9월20일, 제주간호전문학교 제15회 가관식

9월21일, 대전간호학교 제12회 가관식

9월25일, 수피아간호전문학교 제17회 가관식

- 9월28일, 개정간호학교 제23회가관식
- 10월 2일, 춘천간호전문학교 제34회가관식
- 10월 5일, 조선의대간호전문학교 제2회가관식
- 10월 5일, 원주간호전문학교 제1회가관식
- 10월10일, 경남간호전문학교 제25회가관식
- 10월11일, 포항간호전문학교 가관식
- 10월12일, 경희간호전문학교 제7회가관식
- 10월18일, 안동간호전문학교 제7회가관식



대한간호학생회 제16회 정기총회

대한간호학생회 제16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4~5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의 45개교 학생대표가 모인 가운데 본회 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문교부장학실장의 치사(대독)와 본회 전산초회장의 격려사(대독), 고문으로 제신 본회 이귀향이사의 축사가 있으므로로서 학생회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어서 가진 수회에서는 한회기 동안의 사업보고 및 신안건의, 임원개선등 70여명의 전국대의원들은 날카로운 비판력과 관심속에 회의를 진행하여 시종일관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총회에서 새로 가입된 학교는 안동, 제주, 진주, 전남의대간호학교, 수원, 대동간호학교등 6개교로 현재 총가입교는 45개교가 되었다.

한편 한회기동안 동분서주하며 회를 이끌어온 이금라회장을 비롯한 각임원들은 본회창립50주년기념 나이팅게일음악회며, 전국체육대회, 또한 봉사활동등 어느해보다도 많은 활약으로 임기를 마치고, 새로 선출된 후배임원들에게 회를 물려주었다.

제16회기 신입원 명단

- 회 장 홍 애 경 (서울의대간호학과)
- 부 회 장 방 보 숙 (경희간호전문학교)

- 총 부 이 찬 숙 (가톨릭의대간호학과)
- 회 계 김 재 장 (이화간호대학)
- 서 기 하 명 숙 (적십자간호학교)
- 문화부장 이 선 잉 (고려의대간호학과)
- 차장 김 미 자 (국립의료원간호학교)
- 학술부장 백 숙 회 (연세간호대학)
- 이 명 진 (서울간호전문학교)
- 음악부장 최 원 환 (위생간호학교)
- 서 주 원 (한양의대간호학과)
- 체육부장 하 영 희 (경희)
- 조 경 숙 (철도간호학교)
- 감 사 김 우 숙 (순회)
- 이 성 희 (국문)

지 부 장

- 부산지부 박 영 해 (메리놀간호학교)
- 충청지부 이 갑 이 (충남의대간호학과)
- 전라지부 신 현 숙 (수피야간호학교)
- 경북지부 김 숙 자 (경북의대간호학과)

전국대학간호학회 제1회 학술발표회

지난 9월 21일 전국대학간호학회 제1회 학술발표회가 전국대학간호학회 주최, 대한간호학회후원으로 본회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간호원과 사회의식」이란 주제아래 처음 진행된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연세간호대학 김모임

박사의 특강이 있었으며, 가톨릭의대간호학과 천선주양의 「농촌환아의 간호」의 연세발표외 6개의 연제가 각학교에서 발표되므로써 학생들 학문발전에 크게 밑거름이 됐다고 하겠다.

수학여행 중 본회 방문한

전주예수병원 간호학교 학생들

지난 10월 12일,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던 전주예수병원간호학교학생 30명은 김강미자선생의 인솔하에 본회를 방문했다.

본회에서는 이들을 맞아 환영하는 티파티를 베풀어 주는 한편, 본회의 기능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여 주는 등 함께 환담하기도 하여 이들은 흐뭇한 마음으로 다시 귀로에 올랐다.

「캘리포니아」 한국간호원회 소식

신임회장에 유분자씨 당선

지난 8월 19일 캘리포니아한국간호원회에서는 제3회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대한 토의와 임원 개선을 했다.

이번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유분자씨는 “본에 넘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7명의 이사들의 협조를 받아가며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하는 내용과 함께 장차 회원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 하는 계획과 문의를 서면으로 본회에 보내왔다.

그리고 외국에서 가장 필요한 R.N. 시험 준비 등 합격에 도움을 일이 중요하게 생각되어 그 대책에 대한 경제적인 고민을 해왔으나 다행히도 이사들의 협조와 특히, 적십자간호학교 동창일등이 150\$을 기탁하여 와서 R.N 시험을 위한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기쁜소식과 그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해왔다.

한편 본회에서는 그곳 간호원회에 격려의 말

과 함께 4년간의 임기를 마친 전회장 황선희씨, 서기 김상경씨, 회계 우애지씨에게 감사장을 보냈다.

「시카고」 한국간호원회 소식

「시카고」한국간호원회에서는 지난 9월,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개선이 있었다. 신임임원명단

회 장 : 전영숙 (연세간호대학)
부회장 : 방혜영 (대구동산간호학교)
총 무 : 박노체 (")
재무부장 : 최지숙 (연세간호대학)
서기부장 : 김수미 (가톨릭간호학과)
섭외공보부장 : 김애순 (전주 간호학교)
이 사 : 조선자 (연세간호대학)

이곳에서도 역시 R.N.수험반 배려에 전념하고 있다.

육군간호병과장 이취임식

신임에 조병숙대령

지난 10월 11일, 육군본부간호병과장 이취임식이 있으므로 그동안 본회 군진지부장을 겸임해오던 김남희 대령이 임기만료로 사임하고 국군간호학교장으로 있던 조병숙대령이 새로 임되었다.



조병숙대령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하면,

1950. 서울의대 간호학교졸업

1950. 11. 군에 입대, 소위로 임관.

1960. 도미하여 트리폴리 육군병원에서 실무교육이수.

그후 수도통합병원 간호부장 및 2군간호과장, 파월하여 주월사 간호과장을 지냈고, 귀국후 국방부 보건과 간호담당관으로 근무.

1972. 제3대 국군간호학교장에 부임
 1973. 10. 제14대 간호병과장에 부임

신임 국군간호학교장에

이종수중령 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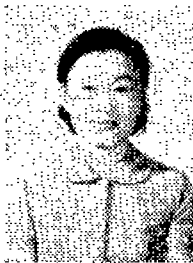


전 조병숙교장이 간호병과
 장으로 이임되면서 그 후임
 으로 1군사령부 간호과장이
 던 이종수중령이 부임됐다.

신임 이종수교장은 청주간
 호학교를 졸업하고 50년11월
 소위로 임관, 20여년동안 군간호에 이바지해 온
 분이다.

적십자병원 간호과장에

최금록 씨 부임



지난 9월 새로 부임된 최금
 록과장은 1930년 서울에서 출
 생, 1950년도 적십자간호학교
 를 졸업하고 본병원에서 근무
 해온 분으로, 항상 조용하게
 업무처리를 해낸다는 평이다

회원소식

• 미국「캘리포니아」에 계신 노보신선생(제5회
 나이팅게일 기장수상자)일시 귀국, 본회 방문하
 여 격려를 보내고 출국하시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로스안젤레스그렌델
 병원에서 모범표장장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다.

• 서독에서 함부르크 한국간호사회 회장을 맡
 아 수고해오신 유명진회장 귀국하여 본회 방문
 하다.

• 서울의대부속병원 박정호간호과장은, 지난
 8월 23일 간호행정연구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푸를 향해 출국; 이곳 말레이시아유니버시티에서
 6개월간 머무를 예정이라고.

• 미국에 계신 이금전선생은, 사업관건축기금
 으로 5만원 보내시다(10.4).

• 경희의료원 간호원일동, 간호연구기금으로
 2만5천원 보내오다.

• 수개월 공석이던 본회 섭외공보부창에 이덕
 희씨 부임하다. (9.7)

<특남소식>

• 고려의대 간호학과 이진경선생은2녀의 어머
 니로 8.12일 특남했다는 안도의 소식이다.

• 한양의대 간호학과 김주희선생은 1녀1남의
 어머니로 특남하고 더욱 흐뭇해 하고 있다고.

한양의대 간호학과장에

신덕화교수 부임

한양의대간호학과장에 새
 로 부임된 신덕화과장은 그
 동안 가톨릭의대간호학과교
 수로, 또한 본회 상임이사이
 기도 한 분으로,

아래에 약력을 간단히 소
 개 한다.



1931. 출생

1950. 세브란스간호학교졸업

1953~, 다년간 정부및보건기관에서 결핵관리사업
 에 참여

1966. 인도 Calcutta에 있는 Allindia Institute) of
 Hygiene & P.H.에서 보건간호 자격

1969. 가톨릭의대 간호학과전임강사 발령

1971. 가톨릭의대 간호학과 조교수 발령

1972. 가톨릭대학교대학원이수, 산업보건간호학석사

1973. 8. 한양의대 간호학과과장(부교수)발령